

# 대학 독서 교육용 한 쪽짜리 보고서 양식 연구

임도한\*

- I. 들어가는 말
- II. 대학 독서 교육 현황과 독서보고서 양식 개선의 필요성
- III.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의 구성
- IV. 결론

##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현재 대학생의 작문 수준과 독서 실태를 고려하여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지사항,

둘째 책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베껴 쓰는 것.

셋째 앞에서 인상 깊다고 한 근거를 본문에서 세 개 이상 찾아 설명하는 것,

넷째 원제목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 양식은 작성할 분량이 적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따라 작성하면 된다는 점에서 작문에 자신이 없는 학습자라도 막막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 양식을 작성하면서 정확한 근거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법과 논문작성법 중 주석 다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ecopoetry@gmail.com](mailto:ecopoetry@gmail.com)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과 논문작성 시 주석을 다는 능력은 대학생이라면 전공과 무관하게 반드시 익혀야 하는 능력으로 판단했고 독서보고서를 만들 때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문항별 작성 방법은 평가자의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독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작문 비전공 교수들이 평가할 때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결과의 객관성도 올릴 수 있다.

한 쪽짜리 보고서를 활용한 교육이 기존에 독서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기존 교육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현재 대학생의 수준에 맞춰 교육하는 보완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독후감, 논리적 글쓰기, 주석 달기

## I. 들어가는 말

여럿이서 같은 영화를 봤음에도 남에게 설명할 때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누군가는 특별히 실감 나게 묘사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얘기도 누가 하면 재미가 없고 누가 해야 더 맛깔난지 지인들은 잘 안다. 이 경우 영화든 책이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청자와 상황에 맞춰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차이를 결정지을 것이다.

누군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고 할 때 그 최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그 수준은 맥락과 상상력의 조합이 연출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남보다 말과 글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며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문제 해결에 뛰어나다는 점과 이 능력이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은 상식이다.

독서는 책이 발명된 이래 인류의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는 수단이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그 위상이 많이 밀리

고 있으나 과거 책 한 권의 가격이 오늘날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보다 훨씬 비싼 적도 있었다. 아마도 그 기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오늘날 시대를 선도한 인물로 스티브 잡스를 꼽을 때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기존의 틀을 깨고 시대를 선도한 면을 인정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가 ‘고정관념을 깬’ 측면만 독자적으로 강조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럴 수 있었던 비판적 정보활용 능력과 교양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가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려면 누구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비판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스티브 잡스의 논리적 비판의식과 창의적 발현력을 강조하고 싶으며 그 원동력은 독서로 본다.

한양대 조병영 국어교육과 교수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해력에 해당하는 서구의 리터러시(Literacy) 연구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정보와 나의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2022.12.6.)이라고 하여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과 창의적 발현력을 강조하는 견해를 보인다.

어느 시대나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를 선도한 위인은 존재했다. 성실함, 이해력, 창의력 등이 아우러져야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타인의 성과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안주하면 누군가의 선도에 열광하고 추수하는 존재에 머물 것이다.

18세기 조선시대의 지식인 박제가의 독서법에서도 “영역에 제한을 두거나 독서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시대 환경에 맞는 지식인의 역할을 찾는 데 실패하게” 됨을 배울 수 있다.(권영식, 2012, 218)

최신의 통계자료인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일 년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연간 종합독서율’이 성인이 47.5%로 전년 대비 8.2% 포인트 하락했고

---

1) 「대학」과 「중용」의 조선 성종 때 가격이 2년 치 쌀값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두 권을 합본한 책을 인터넷에서 7,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학생이 91.4%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11) 기성 세대가 학생들의 독서율 하락을 비판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성세대의 저조한 독서율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심심한 사과’나 ‘사흘’을 두고 벌어진 문해력 논란<sup>2)</sup>에서도 기성 세대의 시각으로 젊은이들의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영어나 IT관련 용어에 대한 기성 세대의 문해력 또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독서가 인생에 유의하다는 답변율이 성인 67.8%, 학생 80.8%로 나옴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독서의 의의만큼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사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117)

독서율 하락은 전세계적 추세라 하겠지만 독서의 활성화와 양질의 독서를 위한 노력은 포기할 수 없다. 독서는 독자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확산 중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그 감각적 효과로 인해 이용자의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는 면이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성인의 경우 생업, 학생의 경우 학업과 독서를 방해하는 항목 1위를 다룰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121) 독서율이 낮아질수록 독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점을 대학생에 맞추면 현재 대학생의 저조한 독서율과 글쓰기 능력이 충실한 독서 교육에 큰 장애가 됨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조사한 신명선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중 대학 수준에 맞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 전체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미흡한 글쓰기 수준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만 보통 수준을 보이고 친교, 설득, 정서표현 등에서는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무른다고 한다.(2022, 33~34)

중등교육의 미흡한 성과는 대부분 수능 준비에 집중하는 입시 부담에서

---

2) 한자 심심(甚深)을 모르는 젊은이가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에 대해 왜 사과를 심심하다고 하냐고 비난한 일과 고유어인 ‘사흘’을 모르는 이가 3일을 왜 ‘사(4)흘’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비판에 발생한 문해력 논란을 말한다. 민경원·김정연, ‘심심한 사과’, ‘사흘’ 문해력 논란 … 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2022.12.5. 참조.

원인을 찾는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수능시험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수능 시험은 대학 입학 후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능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부담이 역설적으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장애가 되는 현실이 문제다.

## II. 대학 독서 교육 현황과 독서보고서 양식 개선의 필요성

대학생의 수준이 미흡한 현실 속에서도 대학 교육은 교과 목표대로 진행 중이다. 독서 교육은 글쓰기 실습을 많이 포함하는 작문 관련 교과를 제외하면 과목별 교육 목표에 따라 관련 도서를 읽고 정보를 얻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독서가 지향하는 내용은 전공이나 교양이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대학 독서 교육 전반을 진단한 손대익·장충덕이 박수자의 정리를 재인용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018, 117)

<표1 대학 독서 교육의 종류>

대학 교육	독서 교육	교양의 지향성	성격
교양 교육	교양 독서	다양한 지식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한다.	수평적 독서 (확산적 독서)
전공 교육	전공 독서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수직적 독서 (수렴적 독서)

이 내용을 보면 교과목 성격에 따라 도서 선정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더 효율적인 독서가 되기 위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독서 교육은 교과목 고유의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보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희영은 대학의 ‘독서 에세이 교육’을 주제로 연구하여 비교과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

교육은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지향하는데 일주일에 2~3시간 교육하는 정규 교육만으로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교과와 비교과 과정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2016, 514)

비교과 독서 교육의 현황은 손대익과 장충덕의 정리가 유용하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참여한 대학을 중심으로 비교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43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릴레이 읽기’부터 ‘체험 기행’까지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시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2018, 118)

<표2 전국 대학의 비교과 독서 교육 현황>

프로그램 유형	대표사례	대학
I 읽기 중심	독서클럽, 릴레이 독서	광운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신대, 목원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명대, 순천대, 울산대, 조선대, 중앙대, 충북대, 한림대
II 쓰기 중심	감상문 대회, 백일장, 서평 공모전 인증제	가천대, 건양대, 금오공대, 대전대, 목원대, 부산외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송실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 한림대
III 듣기 중심	북콘서트, 고전/인문 강연	가천대, 부산외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울산대, 한양대
IV 말하기 중심	(독서) 토론대회	가천대, 건양대, 대전대, 동국대, 부산대, 상명대, 순천향대, 송실대, 울산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밭대, 한양대
V 체험(활동) 중심	독서 캠프, 독서 기행, 독서 골든벨, 독서치료	광운대, 동명대, 배제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송실대, 안동대, 울산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독서 교육의 핵심이자 기본은 독후감 이든바 독서보고서를 잘 쓰는 것이라 하겠다. 독서 교육에서 독서보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학교 독서 교육의 71.1%가 독후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22, 159) 앞서 표2에 정리한 비교과 독서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들을 봐도 충실한 독후감이 대부분의 독서 교육에 필수적이다.

손대익·장충덕은 앞선 연구의 결론에서 독서 교육이 충분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둘째 전문적인 튜터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가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으며 나아가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 예산 지원이 절대적이며 재원 확보와 인력 배치 문제가 장기간 지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이라고 한다.(2018, 120)

독서 교육에서 튜터링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교과 교육이든 비교과 교육이든 독서 교육에서 작문 전공자의 지도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현실적으로 독서 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작문 비전공 교수가 독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어떤 방식이든 독서 교육의 개선을 모색할 때는 독서보고서(독후감)를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예산 부담과 작문 비전공 교수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생의 낮은 독서율과 미흡한 글쓰기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어야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필자는 수십 년간 대학 과정의 작문 교육을 담당하면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교육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학습 동기를 일깨우는 데 집중하면서 작문 교육이 지향하는 전통적인 항목들을 자상히 설명한 적도 있고 독서와 글쓰기 실습 기회를 최대한 부여한 적도 있고 실습 기회가 줄어들더라도 세세한 첨삭에 주력한 적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교육목표를 적절히 설정해야 하고 교육방법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족함을 반성하는 경험이었다.

필자는 기왕의 교육 경험과 오늘날 대학 독서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별한 독서보고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 교육의 여러 항목 중에서 독서보고서의 개선을 시도하는 이유로는 전공과 교양, 교과와 비교과 독서 교육 구분 없이 기존의 독서 교육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으며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첫째이고 적은 분량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자에게 요구함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둘째 이유다. 더 상세한 사항은 Ⅲ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Ⅲ.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의 구성

#### 1. 교육 목표

독서보고서(독후감)를(을) 작성할 때는 작문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들의 대부분을 공유한다. 일반적인 작문교육에서 좋은 글쓰기를 위한 보편적인 점검 항목은 배제대학교의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sup>3)</sup>가 잘 보여준다.(이희영,

#### 3)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수정 방법
주제 및 내용	1. 주제의 선명성 -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조사의 충분성 - 글쓰기 화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는가.		
	3. 분석의 타당성 -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가.		
	4. 논거의 적절성 -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인용의 정확성 - 자료에 대한 인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인용에 대한 표시들이 바르게 이루어졌는가.		
	6. 글의 참신성 - 글의 주제나 내용, 표현이 참신한가. - 진부한 내용이 있거나 상투적 표현이 있는가.		
글의 구성	1. 글의 통일성 -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 각 단락은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2. 글의 개요 - 글의 구성 및 배열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글의 세부 단락	1. 단락의 통일성 - 글의 단락은 알맞은 소주제문을 가지고 있는가.		
	2. 단락의 응집성 - 단락의 문장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문장의 짜임새 및 어휘 표현	1. 글의 응집성 - 접속어나 지시어가 자연스럽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 지시어의 지시대상이 없거나 불명확하지 않은가. - 접속어의 논리적 관계가 정확한가.		
	2. 문장의 명료성 - 문장은 글쓴이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3. 문장의 정확성 -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지 않은가.		

글의 주제, 내용, 구성, 단락, 문장, 어휘 등 이 체크리스트에 정리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글쓰기에 임한다면 좋은 글이 될 것이지만 이 사항을 강의만으로 학습자가 익히게 하기는 힘들다. 학습자에게 실제 글을 쓸 때 충실히 확인하며 작성할 것을 권하는 데 그칠 뿐이다. 첨삭 지도를 할 때도 모든 항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상기 체크리스트에 언급된 항목들 모두 중요하겠지만 글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 항목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필자는 간단한 에세이부터 학술논문까지 작성해야 하는 대학생의 글쓰기에서 ‘주제의 선명성’과 ‘논거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글이든 글쓴이의 의도가 명확한 글이 좋고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정확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논리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논지가 분명하고 탄탄한 글을 쓰는 능력은 대부분의 글쓰기에서 핵심 줄기를 이룬다.

필자가 구상하는 독서보고서의 교육 목표로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지향하면서 방법론적으로는 논문작성법 중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대학생 모두가 논문을 본업으로 삼게 되지는 않겠지만 대학은 최고 교육기관이므로 대학생이라면 논문의 의의와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논문은 현재 인류가 도달한 수준을 보여주며 어떤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맞추어 작성한 글이다.

가치 있는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성, 논리성, 정확성, 검증가능성(또는 재현성)을 갖춰야 한다.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료 검색, 분석, 주제 선정, 논문 작성법 익히기, 초고 쓰기, 퇴고 등의 단계를 다 이행해야 하나 모두 소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습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이상원, 2011, 85~86) 논문작성법은 단기간에 교육하기 힘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주어 서술의 관계는 명확한가.</li> <li>- 중의적 문장, 모호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li> <li>-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은 없는가.</li> </ul>		
--	--	--	--

“학술 논문은 해당 학문 분야가 요구하는 논문의 체계와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엄격한 글쓰기”(김미선 외, 2015, 194)이므로 그 양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주석은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석 다는 법을 새로운 독서보고서 양식에 적용한 이유는 주석이 바로 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면서 주석 다는 법도 익힐 수 있다. 필자의 교육 경험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주석의 세세한 형식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토로했고 시험이나 기말 리포트 정도로 실습하는 것으로는 교육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교과든 비교과든 독서 교육에서는 독서보고서를 작성할 기회가 논문작성법 교육 시 논문을 작성하는 기회보다 몇 배 늘어날 것이므로 주석을 다는 실습 기회를 학습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 2.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안)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안한 독서보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b>독서보고서</b>	
작성자 : _____	
	내 용
1	서지사항(저자,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2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그대로 베껴 쓰시오.(분량은 1~2 단락)
3	2번 답의 근거를 책 내용에서 3개 이상 찾아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주석의 직간접 인용법을 활용할 것)
4	책의 제목을 자기만의 표현으로 달리 쓰시오.

이 보고서는 분량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제한하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글쓰기 부담을 줄이면서 간결하고 정확한 글쓰기를 유도한다.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학습자의 경우 글을 시작할 때 느끼는 막연함을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다. 글의 구도나 개요를 작성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라 하겠는데 이 보고서 양식은 그러한 고민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작성 분량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한쪽만 작성하면 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분량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거부감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각 문항의 작성법을 공개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특징이다. 학습자는 한쪽밖에 안 되는 보고서를 다시 4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간단히 기술하면 된다. 물론 군더더기 없이 간단히 표현하는 부담은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간단명료한 글을 작성하는 훈련은 장차 긴 글을 정리하거나 작성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채석용, 2011, 71)

첫째 문항은 해당 도서의 서지사항을 묻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읽은 책의 저자와 제목, 출판사, 출판 시기를 확인하여 기입해야 한다. 지식인으로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거로 제시할 때 명확히 밝혀야 하기에 고안한 문항이다.

둘째 문항은 책을 다 읽은 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묻는 것이다. 학습자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직접 인용 방식으로 그대로 베껴 써야 하며 분량은 2개 단락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학습자의 선택한 부분은 학습자가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책의 주제로 파악한 것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학습자 나름의 감상과 밀접한 내용일 수도 있다. 학습자는 이 문항의 답을 위해서 책의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항은 둘째 문항에서 인용한 부분을 선택한 근거를 묻는 것이다. 학습자는 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본문에서 근거를 세 개 이상 찾아 설명해야 한다. 이때 논문의 주석을 다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직간접 인용 방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3자가 학습자의 답변 내용만을 보고도 작성자의 논리를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석을 다는 방법에는 각주와 후주, 내주 등이 있으나 이 보고서 양식에서는 내주 방식을 적용한다. 학습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결정하고 직접 인용 방식으로 원문 그대로 보여줄 것인지 간접 인용 방식으로 그 부분을 참조한

것임을 언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직접 인용 방식을 적용할 경우 둘째 문항 답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술 하면서 본문의 해당 내용을 인용부호(“”)로 구분하여 옮겨 적고 바로 뒤에 이어서 괄호 안에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쪽번호’를 기입한다. 간접 인용 방식을 쓸 경우에는 앞선 경우와 같은 이유를 기술하고 그 문장 맨 뒤에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쪽번호’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단 간접 인용한 것이므로 쪽번호 뒤에 “참조”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간접 인용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제3자가 해당 부분을 읽어보면 작성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논문작성법상에는 같은 자료가 반복될 때 반복되는 정보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서보고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예외적으로 반복해서 표기함으로써 실습 기회로 활용한다. 논문작성법은 게재 기관에 따라 별도의 형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에 따라 표기하는지는 대동소이하므로 이러한 연습을 통해 학습한 결과 어떤 기관의 형식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를 본문의 내용 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다소 방지할 수 있다. 챗GPT나 BARD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중이지만 표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연구 윤리적 문제를 낳거나 정치적 답변으로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023년 5월 11일 구글에서 공개한 인공지능 바드의 경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글로 물었을 때는 한국 영토라고 했고 일본어로 물었을 때는 분쟁 지역이라고 했을 정도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SBS·MBC, 국제뉴스, 2023.5.11.)

셋째 문항의 답변 내용은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그 내용만 보고도 작성자의 논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독서 토론회를 했을 때 장점으로 작용한다.

독서 토론회 참석자는 공통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해야 하지

만 실제적으로는 학습자에게 도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여러 책을 대상으로 쓴 보고서를 가지고 같은 시공간에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학급 전체의 일부로 제한된다. 하지만 개선 독서보고서를 이용하여 토론회를 진행하면 셋째 문항의 답변 내용만 보면서도 작성자의 논리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문항은 책의 제목을 학습자 나름의 표현으로 달리 써보라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한 책의 주제와 의미를 제3자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얻는다. 글쓰기에서 간단한 창작 실습 효과도 있으므로 평가자는 학습자의 종합적인 이해도와 창의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 3.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안) 활용법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를 활용한 권장 교육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자에게 양식과 작성 방법을 미리 공지한다. 양식은 문서작성 파일로 한정하고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여 최소한의 분량을 확보한다.

② 읽을 책을 선정한다. 이때 전공, 교양, 교과, 비교과 여부에 따라 교육자와 학습자가 소통하면서 결정한다. 학습자의 독서 동기를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의 선택을 우선시 하여 한 학급에 복수의 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

③ 작성한 독서보고서를 복사해서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작성자가 먼저 발표하고 동료가 평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④ 발표자는 교수와 동료의 평가를 반영하여 자신의 논리 수준과 창의력을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독서를 지향한다.

⑤ 교수는 작성 지침을 평가 지침으로 활용하고 토론 진행상을 함께 반영하여 보고서 수준을 평가한다.

⑥ 1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를 진행하고 개인이 독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하면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비교적 충실한

독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 대학생의 낮은 독서율과 미흡한 글쓰기 수준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독서보고서 양식을 구상해보았다. 독서의 고유한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학생의 현실적인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쪽짜리 간단한 양식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작성법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기존의 독서 교육을 대체하거나 획기적인 개선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독서 교육이 포함하고 있는 독서보고서 양식을 개선하여 기존 독서 교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조금 높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글쓰기는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깨달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서 과제로서 보고서를 쓰는 일은 동기 부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시작하는 단계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이 보고서 양식을 따라 작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필수 자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고서 양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독서 교육에 대부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서 교육의 기본 요건이 독후감(독서보고서)이므로 이 보고서 양식을 적용하여 교육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둘째 대학 독서 교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예산과 인력 지원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교육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작문 비전공 교수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지원 문제의 부분적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간단한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실습함으로써 큰 부담 없이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은 대부분의 글쓰기

에 필수 자질이다.

넷째 학습자에게 검증 가능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연습 기회를 비교적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셋째 문항을 작성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는 연습, 자신의 논리를 정확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 연습, 타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대학의 독서 교육을 작문 전공 교수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작문 비전공 교수의 평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문항별 작성 방법은 한편으로 학습자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논리적 글쓰기와 정확한 근거를 대는 연습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식 평가나 세세한 첨삭에 부담을 느끼는 작문 비전공 교수의 독서 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

여섯째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려되는 연구 윤리적 문제와 거짓 정보의 문제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 주석을 다는 연습은 혼란한 시대에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제공할 것이다.

일곱째 3번 문항의 답을 활용한 토론회는 제3자의 평가에 도움을 줌으로써 독서토론회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불성실한 독서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전 독서에 소홀한 동료의 참여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토론을 위해서는 책을 선정하고 공통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의 상황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독서토론회의 대상 도서를 선정할 때도 평가자는 교육 목적을 우선으로 할 것이고 학습자는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참여도를 달리할 것이다.

여덟째 간단한 보고서양식을 작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떨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홉째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자기주도적으로 찾아 정확한 정보를 마련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상의 장점들은 단순히 가능성에 기대어 과장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으나 독서와 글쓰기는 인간의 상상력을 원료로 하므로 어떤 계기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의 한계도 상상력이 가능성을 공유할 것이다.

한 쪽짜리 간단한 보고서 양식일 뿐이지만 작문과 논문의 중요한 씨앗을 함양하는 것이므로 수십 년 교육 경험과 대학생의 현재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기존 독서 교육에 큰 무리 없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동훈, 2023,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제82호, 469-496.
- 권영식, 2012,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다산의 독서전략』, 글라이더.
- 김미선 외, 2015,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중앙대학교출판부,
- 민경원·김정연, 2022, 「‘심심한 사과’, ‘사흘’ 문해력 논란 … 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2022. 12. 5.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박수자, 2004, 「대학 독서 교육의 조명」, 『독서연구』, 제12호, 한국독서학회, 31-52.
- 손대익·장충덕, 2018, 「대학의 독서 교육 현황과 과제-충북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52집, 우리말학회, 113-135.
- 신명선, 2022, 「국내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학력 격차」, 『國語教育學研究』, 제57집, 5-43.
- 이상원, 2011, 『서울대 인문학 글쓰기 강의』, 황소자리.
- 이희영, 2016,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서의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4호, 513-541.
- 조병영, 2022, 「문해력의 본질을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 『한국일보』, 2022.10.6.
- 채석용, 2011,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 소울메이트.

## **A Study on the One-Page Report Form for University Reading Education**

Lim, Dohan  
(R.O.K.Air-Force Acade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reading report form that considers the writing level and reading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This report consists of four questions.

The first is bibliography.

The second is to copy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book.

The third is to find and explain more than three reasons why I read impressively in the book.

The fourth, changing the title of a book to your own expression.

This form has a small amount and provides specific instructions on how to write, so even learners who are not confident in writing can easily participate.

Learners can practice expressing logically based on accurate evidence and how to annotate.

Logical writing and annotation skills are essential for university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major, and are also essential when writing reading reports.

Since the writing method for each question can be used as an evaluation criterion, it lowers the evaluation burden of non-professional professors and helps with objective evaluation.

Education using this report cannot replace existing reading programs, but education at the current level of learners will be a significant supplementary

measure without much change in existing education.

**Keyword** ● One-Page Report Form, Reading Report, Logical Writing, Annotate

▮ 논문투고일 : 2023. 06. 12. ▮ 심사완료일 : 2023. 06. 18. ▮ 게재확정일 : 2023. 06. 19.